

바둑학 20여년을 돌아보며

정수현(전 한국바둑학회 회장)

I. 들어가며

바둑의 역사는 오래 되었으나, 바둑학의 역사는 매우 짧다. 3000년의 바둑 역사에서 바둑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의 끝자락에 와서이다. 많은 학문 분야들이 지난 100여 년간에 발전되었으나, 바둑학의 연구는 1997년 명지대학교에 바둑학과가 창설된 후부터 겨우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을 뿐이다.

그동안 ‘바둑학(Baduk Studies)’의 이름으로 연구를 하여 발표를 하고, 바둑계의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등의 활동이 있었다. 그런데 바둑학이 태동하던 시절의 활동에 관한 기록은 뚜렷하게 남겨져 있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 바둑학의 초기 역사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다. 이미 기억이 희미해진 부분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바둑학에 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하여 최초의 바둑학과 교수로 바둑학의 정초(定礎)에 관여했던 입장을 살려 이 시기의 활동에 관한 기억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을 다루게 되어 엄격한 형식의 역사적 기록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일종의 구술자료와 같은 성격의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이 훗날 바둑학의 역사를 정립할 때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도 바둑학회의 활동을 돌아보며 반성적으로 성찰할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II. 바둑학의 역사(略史)

1. 바둑학의 기원(起源)

바둑에 관한 연구는 오래 전부터 행해져 왔다. 중국 남송 때 나온 <망우청락집(忘憂淸樂集)>, 원나라 때 나온 <현현기경(玄玄棋經)> 같은 고전에는 사활묘수 등에 관한 연구와 함께 ‘기경(棋經)13편’, ‘기결(棋決)’과 같은 바둑이론이 담겨 있다. ‘기경13편’에서는 바둑을 ‘전쟁의 기예’로 정의하고, 병법(兵法)과 동류로 간주하여 그 내용을 <손자병법>처럼 13편으로 구성하였다.

이후 <관자보(官子譜)>, 대국설명과 같은 저작이 나왔고, 17세기 이후에는 일본에서 바둑고수들의 대국을 기록하고 분석한 연구들이 나왔다. 현대에 와서 일본에서는 고수들의 대국집과 부문별 기술서를 포함한 무수히 많은 바둑서를 발간하였다. 그 저술은 태반이 바둑기술에 관한 내용이었지만, 바둑의 역사나 미학(美學) 등 문화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현대바둑의 개척자’로 불린 조남철 9단이 <바둑개론>을 비롯한 10여 권의 책을 냈고, 바둑 잡지에서 다양한 메뉴를 선보였다. 잡지에는 바둑기술에 관한 내용과 함께 바둑역사이야기, 바둑에세이, 바둑소설 등이 실렸다.

이런 콘텐츠는 어떤 면에서 바둑의 학문적 연구와 비슷하기 때문에 언제부터 바둑학이 시작되었는지를 얘기하기는 쉽지 않다. 아마도 바둑학의 기원은 <망우청락집>보다 앞선 <둔황기경(敦煌棋經)>을 꼽아야 할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많은 영역에서 학문적 연구의 시작은 상아탑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상아탑에서의 연구가 연구방법이나, 지식의 구조로 볼 때 과거의 접근법보다 체계적이라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경향으로 본다면 바둑학은 명지대학교에 바둑학과가 창설된 1997년을 바둑학의 원년(元年)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2. 바둑학의 태동

바둑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삶에 여러 면으로 기여해 왔지만, 20세기 말엽까지 상아탑으로 들어가지는 못했다. 바둑이 대학에서 연구하고 가르칠 만한 아이템이 아니라는 인식 때문이었을 것이다. 여가시간에 노는 놀이가 학문적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관점이 상아탑에의 진입을 막는 주요 요인이었다.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은 대학에 바둑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학과가 생겨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예를 들면 1990년대 중반 무렵 조흥운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바둑행사장에서 대학에 바둑학과를 개설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조흥운 교수의 눈에는 바둑이 ‘오락’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보였던 것 같다.

이보다 앞서 공식매체에서 바둑학을 논한 글이 있다. 1983년에 <월간 바둑>에 기고한 박우석 철학교수의 ‘학문으로서의 바둑’이다. 박우석 교수는 이 글에서 학문과 바둑이 1) 둘 다 방대한 지식의 체계이고, 2) 발견과 전개 논리를 지니고 있으며, 바둑에서 얻은 지식의 내용 자체가 서구의 개별과학 중 어떤 것의 내용과 일치하기도 한다¹⁾는 점을 들어 바둑의 학문적 가능성을 논하고 있다.

바둑이 학문적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한 언론사 기자가 1990년 중반에 필자의 별명을 ‘바둑학교수’라고 지어줬다. 신산 이창호, 우주류 다케미야와 같이 기사들에게 붙여주는 닉네임인데, 바둑학교수라고 칭한 것이 이색적이다. 이 별명은 대학에 바둑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학과가 있어야 함을 묵시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실제로 이 별명이 나오고 난 몇 년 뒤 대학에 바둑학과가 창설되었다.

1) 박우석, 바둑철학, 도서출판 동연, 2002.

3. 최초의 바둑학과 탄생

20세기 말에 바둑인들이 꿈에 그리던 바둑학과가 탄생하게 되었다. 명지대 고건 총장이 바둑학과의 개설을 검토하도록 하여 1997년 명지대학교에 사상 최초로 바둑학과가 생겨났다.

한국에서 ‘바둑학’이라는 초유의 학문 분야를 개척한 것은 특별한 일이다. 대학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학문은 서양에서 수입해 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이 세계바둑 무대에서 최강으로 부상하고, 이에 따라 아동바둑 붐이 이는 등 사회적으로 바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분위기였음을 반영한다.

바둑학과 개설에 대하여 사회에서도 경이롭게 바라본 듯 최초의 바둑학과 교수 가 된 필자는 여러 차례 매스컴과 인터뷰를 하였고, KBS뉴스라인에 출연하기도 했다. 바둑계에서는 이 사건을 바둑의 가치를 높이는 경사스런 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초기에 바둑학을 구축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았다. 바둑학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었고, 바둑학이 무엇인지도 잘 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먼저 바둑학의 정의(定義)를 내리고 학문적 연구의 당위성을 내세우고 학과의 커리큘럼을 정립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바둑학(Baduk Studies)에 관한 정의는 두세 번 바꾸었는데, <바둑학개론>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바둑학이란 바둑의 본질과 기술, 문화적 현상, 관련된 활동 및 실용적 기능을 연구하는 학문이다.”²⁾

이것은 바둑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정의이다. 그런 점에서 ‘광의의 바둑학’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하여 ‘협의의 바둑학’은 바둑기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다.

협의의 바둑학은 학과 개설 초기의 커리큘럼에서 볼 수 있다. 바둑학과 개설 계

2) 정수현, 바둑학개론, 2019, 명지대학교 출판부.

획서에는 교과목으로 포석, 정석, 사활, 중반전, 끝내기 같은 기술과목을 현대포석, 고전포석과 같이 세분화해 놓았다. 바둑기술 과목 외에 바둑사와 바둑철학이 있었지만, 대부분 바둑기술 위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명지대 바둑학과에서는 광의의 바둑학을 추구하다 보니 기술과목이 축소되고 바둑철학, 바둑심리학, 바둑교육론, 바둑경영론, 바둑문학 등과 같은 문화적·사회적인 부문이 들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커리큘럼은 교육내용 구축과 강사 선정에서 어려움을 노출할 수밖에 없었다. 학과에서 신설한 교과목에 관한 내용이 구축된 것이 없었고, 이러한 내용을 연구한 사람도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맨땅에서 새로운 분야를 창조한다는 마음으로 바둑학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바둑학 구축의 토양이 맨땅이 아니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김용국 씨의 <한국위기사>, 권경언 6단의 <한국바둑인물사> 등 바둑사와 관련된 문헌이 꽤 있었고, 바둑시와 관전기 등 바둑문학에 관한 자료들도 상당히 많았다. 게다가 ‘바둑 패러다임’ 등 학술적 무게가 있는 주제를 다룬 문용직 박사의 <바둑의 발견>이 나오고, 박우석 교수의 <바둑철학>이라는 책이 나와 바둑학에 우군 역할을 해 주었다.

이와 같은 기존의 자료를 토대로 하고 타 분야 - 심리학, 교육학, 경영학, 예술학, 통계학 등 - 의 이론들을 끌어와 바둑학의 열개를 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바둑기술 자체에도 새로운 이론이 출현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바둑 문제해결 이론’, ‘기력 구성이론’과 같은 심리학 기반의 인지적 바둑이론이 나왔다.

4. 바둑문화연구회

바둑학과가 개설되고 학문적인 연구가 미흡하게나마 이루어졌지만, 바둑학을 연구하는 학회는 빨리 탄생하지 못했다. 학회를 구성할 만큼 바둑학을 연구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바둑학회가 생기기 전에 바둑에 관한 학술적·문화적 연구를 하는 집단이

생겨났다. 1999년 무렵 ‘한국바둑문화연구회’라는 이름의 연구모임이 결성되었다.

초기의 멤버로는 바둑문화연구가 이승우 씨, 바둑평론가 양동환 씨, 관전기 작가인 권경연 5단, 박영철 기자, 박치문 기자, 이흥렬 기자, 이광구 기자와 바둑361 김일한 고문, 필자 등이 참여했다. 바둑서지연구가인 안영이 씨와 프로기사 문용직 박사는 한두 번 참석했다가 그만 두었다. 후에 한양대 조흥운 교수, 한상대 전 호주 바둑협회장, 강병원 종로학원 수학과 과장, 김정우 바둑학과 교수 등이 합류하였다.³⁾

이들 바둑명사 중에서 이승우 씨가 초대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이승우 회장은 <바둑과 문화> 제1집에서 바둑계가 승부세계에 너무 매몰되어 바둑문화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미흡함을 지적하며, 이 모임에서 바둑문화를 연구할 것을 천명했다. 사실 바둑계는 승부를 중시하는 시합 위주로 운영되어 왔고, 바둑의 다른 측면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다.

이 연구회 회원들의 바둑문화 탐구에 대한 열정은 상당히 높았다. 이후 바둑학회로 이어지는 바둑학술연구의 실태를 돌아볼 때 이들만큼 바둑문화 연구에 애정을 가지고 참여한 이들은 없었던 것 같다.

연구회에서는 각자 연구한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바둑과 문화>라는 이름의 논집이 3권까지 나왔다. 이 논집의 출간에는 대구의 독지가 박희선 씨의 후원이 있었다.

이 논집에 실린 글은 엄격한 학술논문이라기보다는 각자가 관심을 가진 영역에 관해 쓴 에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자 나름대로 바둑문화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연구임에 분명하다.

5. 국제바둑학 학술대회

2001년 바둑학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행사가 있었다. 최초의 국제 바둑

3) 정수현, *인생과 바둑*, 2002, 창작시대.

학 학술대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Baduk)가 명지대학교 바둑학과 주도로 열린 것이다.

이 행사는 명지대 송자 총장이 바둑유니버시아드를 열라고 하여 준비하던 행사를 예산 문제로 축소하던 과정에서 학술대회로 변경된 것이었다. 바둑대회는 한 번 개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으니, 학술대회를 열어 연구자료 등을 남기자고 한 것이다.

이 계획은 아이디어는 좋았으나, 바둑학회 같은 공식조직이 없는 상태에서는 다소 무모한 시도였다. 더구나 외국 참가자에게 항공료와 숙식비를 제공하면서 25명을 참가시킨 매머드 학술대회를 진행한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번역비를 아끼기 위해 바둑학과 교수들과 학생들이 직접 번역을 하기도 했다.

이 행사에는 삼성화재, 사이버오로의 후원이 있었고 이승우 한국바둑문화연구회장의 헌신적인 기여가 있었다. 또한 행사의 사회를 맡은 한상대 전 호주바둑협회장, 바둑학과 학생들의 지원이 있었다.

이 학술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그 효과는 상당히 컸다. 세계 여러 나라의 연구자들의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발표했고, 이 행사에 참여했던 경험을 널리 알렸다.

이 학술대회를 통하여 바둑학의 존재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겸하여 한국바둑의 홍보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학술대회 발표자 중에는 일본식 용어로 된 바둑 용어를 한국식으로 수정하여 논문을 작성한 사람도 꽤 있었다.

6. 한국바둑학회 발족

바둑학회가 2003년에 발족되었다. 한국바둑문화연구회의 활동, 국제학술대회 개최와 같은 활동을 하면서 정식으로 바둑학회를 조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바둑문화연구회를 모태로 하여 4월에 한국바둑학회 창립 발기인 대회가 열렸고, 6월에 학회가 창립되었다.

바둑학회는 ‘바둑의 학문적 정립, 바둑계 발전을 위한 장·단기 계획 수립, 바둑계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삼았다. 주요 사업은 학술지 발간,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 개최, 바둑계 현안에 대한 심포지엄 개최 등 바둑학의 연구와 관련된 활동이었다.⁴⁾

대학에 바둑학을 전공하는 학과가 유일했기 때문에 바둑학회는 바둑계의 인사들을 포진시키는 방향으로 구성되었다. 앞서 생긴 바둑문화연구회 멤버들이 학회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또한 바둑계의 인사가 아니더라도 바둑을 애호하는 학자나 연구자들도 있었다.

초대 학회장에는 명지대 바둑학과 창설에 기여했던 임성빈 교통공학과 교수가 추대되었다. 학회의 임원진에는 바둑학과 교수들을 포함하여 바둑계 인사 등이 참여하였다. 바둑학회는 바둑계의 관심과 축복을 받으며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2004년에는 인천대학교에서 바둑학회가 주최하는 제1회 바둑학 학술대회가 열렸다. 이 행사에는 이원복 국회의원실의 후원을 받아 ‘인천과 바둑’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도 열렸다.

2004년에 학회지인 <바둑학연구> 창간호가 발간되었다. 이 학술지에는 기력별 기력구성 요인의 특성 분석 연구, 인터넷 바둑 서비스업의 주요현황에 관한 연구, 돌바둑판 연구 등이 실렸는데, 한국바둑문화연구회의 논집에 비해 학문적 체계성이 좀 더 강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바둑학회는 다른 학문 분야와는 달리 학회에 참여하는 학과는 하나였지만, 다른 학회와 비슷한 형식을 따르며 출발을 했다. 바둑학회의 초기 멤버들은 학문적 발전에 관한 기대를 안고 밝은 미래에 대한 꿈으로 가슴이 부풀었다고 말할 수 있다.

7. 바둑학회의 공헌

바둑학회는 학술대회 개최, 학회지 <바둑학연구> 발간을 하여 활동을 개시하였다. 2008년경까지 국제학술대회를 9회, 국내 학술대회를 9회 개최하였다.⁵⁾ 국제학술대회는 대한바둑협회와 제휴하여 여러 차례 행사를 했다.

4) 한국바둑학회, 바둑학연구총람, 2015.

5) 한국바둑학회, 바둑학연구총람, 2015.

또한 바둑학회는 바둑계의 발전방안 등에 관한 세미나나 공청회 등에 참여하기도 했다. ‘인천과 바둑’, ‘부안바둑공원 발전방안’, ‘바둑계의 발전방안’ 등과 같은 바둑계 및 지역사회 바둑문화 발전에 관한 발표회를 갖기도 했다.

몇 가지 활동 중에서 바둑학회의 가장 큰 공헌은 학술지인 <바둑학연구>를 통하여 발표된 논문들이었다. 이 논문들은 바둑 기술, 기력 평가, 이론, 사고방식, 제도, 교육, 인공지능, 정책, 콘텐츠 등 매우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

그런데 이 논문들과 관련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 이 다양한 연구들이 학문적 지식을 구축하거나, 바둑 분야의 실제 활동에 별로 활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연구들의 결과와 시사점들은 아직 역사가 일천한 바둑학 분야에서 많이 인용되고, 실제적인 면에서도 활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노력을 기울여 연구한 보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 연구들이 크게 활용되지 못하고 연구실 속의 묻혀버린 지식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김바로미 박사의 아동바둑교육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는 언론에도 소개되면서 바둑교육 활성화에 일조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일호의 기력구성이론 연구는 다른 바둑기술서에도 인용이 되며 기력의 요인을 규명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연구들처럼 바둑학의 정립과 실생활에의 활용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 하나의 아쉬운 점은 어떤 연구가 나왔을 때 후속연구가 이루어지며 가설이 검증될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 후속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바둑학의 연구주제가 다양함에 비하여 연구자의 풀은 적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단기간에 해결된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가급적 기존의 연구를 정교화 하는 후속연구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8. 학회의 위기

바둑학회는 구조적으로 취약하였기 때문에 위기 요인을 안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회원을 많이 확보하기가 어렵고, 적당량의 투고 논문을 받기도 어려웠다. 바둑학을

전공하는 대학이 한 군데밖에 없어 이러한 문제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다가왔다.

이러한 어려움은 당연히 재정적 어려움으로 이어졌다. 학회지를 발행하고, 학술대회를 여는 데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바둑학회의 입장에서는 학회를 운영하기가 상당히 버거웠다.

보통 학회지는 학술연구재단으로부터 등재지로 인정을 받아야 회원 수, 투고 논문의 수와 질, 재정적인 문제 등이 해결된다. 그래서 바둑학회도 학회지의 등재를 받기 위하여 투고 논문 심사규정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학술지를 내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구조적인 취약성으로 인해 이러한 노력이 빛을 보지 못했다.

문제해결을 위하여 학회에서는 재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의 인사를 학회장으로 영입하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아마추어 바둑계의 명사인 대구덕영치과의 이재운 원장이 학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이재운 회장은 오사카 상업대학교의 교류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학회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이재운 회장은 학자가 학회장을 맡는 것이 좋겠다며 사임을 했다. 공석이 된 학회장을 필자가 맡아서 하다가, 카이스트의 박우석 교수를 학회장으로 추대하였다. 박우석 학회장은 자신이 맡고 있던 분석철학회와 함께 학술대회를 열고, 학회지 발간, 홈페이지 구축 등 학회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후 명지대 바둑학과 대학원 출신인 김달수 박사가 학회장으로 추대되었다. 김달수 학회장은 세한대 바둑학 전공의 이병두 교수와 함께 학회를 부흥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바둑학회는 앞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학회의 가장 큰 위기는 어떤 면에서 구조적인 요인보다도 주축 멤버들의 바둑학 탐구에 대한 열정이 부족하다는 점일 것이다. 특히 바둑학과 대학원 출신자들이 50명 정도 나왔음에도 이들이 자신들의 연구를 이어갈 동력을 찾지 못했다. 이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한다면 전문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바둑학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나 이 인력들이 바둑학회의 연구자로 편입되지 못했다.

이 외에도 바둑학회에 참여하는 인력들이 바둑학 발전에 사명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학회장을 맡은 리더가 힘이 들 수밖에 없고, 학회장 또한 열정이 식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9. 학회의 재건

바둑학회는 김달수 학회장을 끝으로 바톤을 이어가지 못했다.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지역 바둑계 인사를 학회장으로 영입해 운영을 해 보기로 했다가, 규정상의 문제로 계획이 철회되고 학회가 휴면상태에 들어갔다.

그러다가 2022년에 명지대학교에서 바둑학과를 폐지한다는 계획이 나왔다. 학교의 구조조정을 하면서 철학과, 수학과 등과 함께 바둑학과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그 사유로는 바둑이 사양산업이며, 젊은 층에서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바둑학과로서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다. 대한바둑협회에서는 반대 성명서를 내고, 프로그사 300여 명이 학과 유지를 위한 서명을 했다. 해외 바둑계에서도 바둑학과를 없애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매스컴에서는 세계 유일의 학과가 사라지게 된다는 점이 애석하다는 글을 실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바둑계의 전폭적인 지지에 부응하기 위하여 바둑학과를 중심으로 국제바둑학회를 창립하였다. 초대 학회장에는 남치형 명지대 교수가 추대되었다.

이 학회는 학회지를 내고,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그러나 한국바둑학회의 지나온 과정으로 볼 때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다. 회원 수, 투고 논문, 학회 운영 경비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나온 바둑학회의 활동을 돌아보며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III. 맺으며

한국에서 발아하여 20여 년을 이어 온 바둑학의 짧은 역사를 살펴보았다.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이 많이 들어간 비격식적인 글이지만, 이 글이 바둑학의 역사를 기록하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바둑학은 초기 바둑문화연구가들의 열정, 명지대 바둑학과의 탄생에 힘입어 보 무당당한 출발을 했다. 그리고 바둑계의 발전에 음으로 양으로 상당한 공헌을 했다. 그러나 대학의 학과가 하나라는 점에서 운영상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노출하여 명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바둑과 관련된 대학의 학과가 여러 곳에 개설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바둑학회의 특수한 입장을 고려한 현실적인 전략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바둑학회의 상당수 참여자는 바둑계의 인사나 바둑팬이므로 이들의 수요에 맞게 학회지의 내용을 평이하게 압축한 내용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바둑계의 기관과 제휴하여 바둑계의 현안에 관한 연구를 위주로 하는 현실적인 전략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바둑학이 거쳐 온 발자취를 돌아보며 바둑학의 역사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가기를 기대한다.